

### 자치력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 도모

####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 워크숍

포천시는 지난 27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 충족과 주민자치의식 및 지역공동체 형성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위원들의 자치력 향상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동면, 영북면, 화현면, 포천동 주민자치센터 위원 및 시 관계 공무원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현재 준비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특강은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허훈 교수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경북대학 행정과 문영규 교수의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한편 박윤국 포천시장은 "현재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 운영능력이 미약하다"며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자치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주민자치의 리더십 발휘로 민방위 활성화

####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기념행사

포천시는 지난 22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자조, 자위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상황 및 각종 재난에 보다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달 운전6리 민방위대장이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받았으며, 이 밖에 민방위 유공자 20명과 민방위창설기념 포어·포스터·수필 현상공모 당선자 16명, 주민신고 글짓기·포스터 그리기 입상자 12명 등이 포천시장 표창을 받았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민방위대가 지난 30년 간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데 대해 노고를 치하

하고, 주민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자율방위역량 배양과 재난 대처능력 함양, 시민안전의식 제고 등에 보다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인 창수면 오거리의 백중현 민방위대장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유비무환의 민방위 정신을 일깨웠다.

포천시는 민방위대원이 원하는 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경제활동으로 평일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원들을 위해서는 토요일 및 야간교실을 운영하며, 아울러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사업을 적극 실시하는 등 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 “환경 성장발전 축으로 활용해야”

### 김병태 교수, 경기북부 생태환경보전 구축방안 포럼



대진대 김병태 교수는 생태환경보전 구축방안 포럼에서 환경은 발전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하나의 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진대 환경공학과 김병태 교수는 경기북부의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을 소모품이 아니라 성장의 발전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23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주관한 경기북부 생태환경보전 구축방안 포럼에서

“환경을 성장을 위한 소모품으로 인식한다면 단기간의 경기북부 경제 성장 발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환경가치를 고갈시켜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하고

“재생산이 가능한 환경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의 일반적 또는 특이 여건 및 개발기본계획 현황 등 환경요인 등을 네트워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존 공공기관 및 학교 혹은 연구소 기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네트워크 대상 선정 및 설계단계에는 시스템 요소와 관련된 주민을 비롯한 산업체, 행정기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네트워크의 집행과 관련 시간은 비용절감, 향후의 관리 및 보수유지 등을 감안한다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로 나선 신흥대 황재석 교수는 60여년간 보존된 생태계 보전과 개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역의 환경행정 수행에 필요한 환경정책 개발연구사업을 비롯한 지역 환경오염 문제 조사연구, 사업장 방지시설 개발 및 지원사업, 환경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환경 관련 연구개발 용역사업, 접경지역 생태보존 및 관리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황 교수는 또 경기북부지역 오염물배출 영세업체 체계적 기술지도 및 보급을 위한 거점체계 구축과 접경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기적 조사 및 평가 그리고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8사단,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민원방 개설

육군 8사단은 일부 군사보호시설의 및 군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포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방을 개설,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대국민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민원방은 해마다 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마땅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에 착안,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설했다.

민원방은 민원 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제공하는 한편 상담을 즉시 해결 할 수 있도록 민원게시판을 개설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민원방 개설을 준비해 온 감찰부 손광실 업무담당관 신병환 중사는 “평소 군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많은 지역민이 불편을 토로 했었다”며 “이번 민원방 개설을 통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부대상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목회단상

## 귀뚜라미



김창성 내촌교회목회 목사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초저녁 시골 어디서나 귀뚜라미의 대 향연(嚮宴)의 합창(合唱)을 들을 수 있다.

귀뚜라미는 마치 교향악단의 지휘자처럼 앞에 있는 수염을 지휘봉같이 휘두르며 노래를 한다. 대원은 없었지만 자기 자신이 앞에 불은 날개 두개를 비벼 바나나를 연주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귀뚜라미의 연주는 크게 셋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제1악장의 주제(主題)는 영토선언(疆土宣言)으로서 상당히 큰 소리로 울며 자기의 존재를 과시한다. 제2악장은 몹시 날카로운 소리로 변하는데 그 주제는 투쟁이다. 싸움을 걸고 싸움을 받겠다는 도덕적인 약장이 된다. 제3악장은 몹시 가냘프고 정서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그 주제는 유혹이다. 이 노래가 들리면 반드시 암놈의 귀뚜라미가 가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하다.

귀뚜라미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다. 귀뚜라미는 싸움을 잘 하는 과격파에 속해서 이웃나라에서는 수 천 만원의 몸값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았다.

과격파에 속한 공존이지만 총

이나 폭탄을 쓰지 않고 아름다운 노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간들도 조금은 배울 점이 있다. 귀뚜라미는 자기의 동족이 부르는 노래 이외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지나치리 만치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우리 내로는 귀뚜라미의 초연(超然)한 모습을 배웠으면 한다. 요즘 정치를 보노라면 이진투구(夷陣鬪狗)와 아전인수(我田引水)의 구태(久態) 모습은 여전한 것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성서는 교훈 하신다. 갈라디아서5장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문의) 031-532-2489

### 2006년 농축산 예산지원사업 토론회 지역단위농협 관계자 농축산인 참석 신규사업 설명

지난 2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지역단위농협 관계자를 비롯한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농축산 업무추진 및 신규 신청사업 타당성 여부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포천시 관계 담당들의 2006년도 주요업무 설명



지난 2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지역단위농협 관계자를 비롯한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신청사업 타당성 여부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에 이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농축협 관계자들의 200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각 지역단위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한 농업분야 사업을 보면 ▶영북농협 절임(퍼팩트)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 고사리 시설재배 단지 조성, 고품질 쌀 생산기반에 따른 육묘공공지원 사업 ▶관인농협 두릅나무식재 및 오이 캡 재배사업, 비가림시설, 태양열건조장, 고추세척기 ▶영중농협 바나나, 액비발효기, 파종기, 복토기, 석회살포기, 탈곡기 등 ▶포천축협은 “마음촌” 브랜드의 축산물 육가공공장 및 냉동냉장창고 설립사업 ▶포천사과 영농조합법인 친환경고품질사과 생

력배매단지 조성 ▶포천포도 와인농업조합법인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제조사업 지원사업 등이다.

또 축산분야들은 착유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소 개체번호 스탬프 사업, 돼지농가의 고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과 피드빈 단열재 설치 지원사업, 토끼사육 농가의 양돈농가 하절기 내부시설 환기팬 설치, 양계농가의 계란집하장 및 저온창고 지원사업 등이다. 이 밖에도 포천순환형 축산체질 관광단지 조성사업, 포천시 실내 품평회장 건립, 민간사업방역단 방역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설명회를 함께 가졌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 탐방 우리지역 지킴이-지역방범대 ㉓ 관인면자율방범대 대장 김승배

## 집수리 포천 전지역 봉사로 지역 사회 도움

“관인면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봉사정신을 갖춘 대원들의 집합체입니다”

1980년대 후반 출범한 관인면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방범 및 치안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북지구대로 편입됐던 파출소가 지난 4월 1일 다시 설치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관인면 자율방범대는 야간방범활동 및 관인고 학생 등 야간 학생 통학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 관인면방범대 대장으로 취임한 김승배(39) 대장으로부터

관인면자율방범대의 현황 및 활동상을 들었다.

관인면자율방범대는 김승배 대장을 중심으로 한광수 부대장, 박준우 사무장, 김경순 총무 등 총 19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조로 나누어 매일 저녁 9시부터 새벽1시까지 면민회관, 체육관 등의 방범순찰활동 및 야간통학을 실시하고 있다.

김승배 대장은 “자율방범대의 고유 업무인 순찰활동과 더불어 3년 전부터 귀가길이 늦은 관인 지역 학생들의 통학을 도와주고 있다”며 귀가가 늦은 학생들은

자율방범대를 찾아주길 당부했다.

김 대장은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야간 방범활동 뿐 아니라 봉사활동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 자율방범대는 화현면의 집수리 봉사, 포천 자작동의 사회복지시설에 도배를 다녀 오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관인면자율방범대는 지난 6월 대원들의 뜻과 정성이 담긴 새 터전을 마련했다.

김 대장은 “건축 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해 대원들이 직접 건축에 참여해 밤낮 없이 매달려 건

물을 준공했다”며 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관인면자율방범대는 타지역의 방범대와 같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호회와 일반회비 등을 통해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다.

김 대장은 “매달 차량유지와 사무실 유지를 위해 고정적으로 5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반면 지원금액은 분기당 80여만원 선으로 실질적 운영에 도움이 미약하다”며 실질적인 운영비용 책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김 대장은 대원들이 “밤낮 없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기



김승배 관인면자율방범대 대장

위해 봉사하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주민과 화합하는 자율방범대가 될 것을 다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 전문 동성사



### 생 · 산 · 품 · 목

- ◇ 오디오 장식장
- ◇ 인테리어 소품
- ◇ 가구 장식품 부품
- ◇ 불박이장 부품
-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